

다문화 1번지, 국경 없는 마을



길거리에 다니는 외국인이 신기해 보일 때가 있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 왜 왔을까' 궁금하게 여기며 걸 눈질로 쳐다보는 했었다. 그런 일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어디를 가도 외국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차도르를 걸친 여성이나 특이한 장신구나 헤어스타일을 한 외국인도 그리 낯설지 않다. 이처럼 다문화는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이미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다문화의 중심, 국경 없는 마을 이야기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은 분위기가 남다르다. 수도권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은 반월, 시화공단의 입주로 일찌감치 노동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공단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내국인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졌다. 더구나 3D업종을 기피하게 되면서 내국인들이 하나둘씩 떠난 자리에 자연스럽게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들이 채워지더니 안산은 다문화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특구로 지정된 다문화 거리에는 외국어로 쓴 간판들이 즐비하고, 희귀한 야채나 과일이 가판대를 차지하고 있다. 휴일이면 여기저기서 모여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오히려 한국인의 모습이 낯설어 보일 정도다. 인종, 피부색, 언어가 다르지만 그 안에는 엄연히 질서가 존재하고 있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묘한 신비감이 존재하는 곳, 89개국 7만 5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국경 없는 마을의 일상이다.

주말이면 이곳은 더 북새통을 이룬다.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 도시를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 있고 은행이나 핸드폰 대리점 등에서도 통역이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도 자국 음식점과 다양한 나라의 식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베트남, 네팔,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고 있는데, 특장점을 살린 커뮤니티를 조직해 스포츠를 즐기거나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기도 한다. 또한 자국의 전통 춤을 연습하며 공연을 준비하는 등 문화전파자로서의 역할도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한류 열풍도 한몫한다. 이주민들이 듀엣을 구성해 한국 가요를 부르며 무대에 오르거나 각종 대회에 출전해 수상하기도 한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노동현장에서 일만 하는 이주 노동자가 아니다. 이미 그들은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를 익히며 자국의 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문화 창조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었다.

다문화를 조금이라도 접해 본 사람이라면 이곳 안산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안산시는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지역으로 다문화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제를 위해 이 거리를 찾는 대학생들이나 논문을 위해 오는 연구자들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종 설문지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제주도, 강원도 등이 지역을 탐방하러 오는 단체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처럼 책상 앞에서 듣는 이론적인 다문화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더불어 살 길이다

얼마 전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용인에 있는 H고등학교 다문화이해팀 동아리에서 다문화 체험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기에 다문화학교 아이들과 음식 만들기를 해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하루 일정의 방문 체험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려 2박3일 일정으로 통합 기행을 왔다. 안산역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국경 없는 마을 거리 탐방,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 후 마지막 날 다문화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참으로 놀라웠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며칠 동안 탐방을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다문화학교 학생들과 다문화이해팀 동아리 친구들은 금방 친해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나는 몇 통의 문자를 받았다. 인솔하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낸 문자였다. 다문화에 대해 나쁜 편견을 갖지 않게 되었다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는 미등록자까지 포함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 200만을 넘어섰다(국가통계포탈). 전체 인구에 대한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일 때 다문화 국가라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문화를 편견과 차별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야 향후 평화로운 다문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타 다문화 선진국처럼 외국인들의 차별대우로 인한 유혈사태와 폭동 등을 겪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는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상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몸소 체험해 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 고등학교의 사례처럼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며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았는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소통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언제든 국경 없는 마을에 놀러 와서 이색적인 문화를 체험해 보고, 외국인 음식점에도 들러 맛있는 음식도 먹어 보며, 소통의 장에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것,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자세일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멋진 사명이 있지 않은가!

글을 마무리하며

몇 년 전 한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다. 기자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근황과 문제점을 물어보며 끝으로 어떤



시골북적 축제 의상페스티벌

방향을 가져야 할지 조언을 해 달라고 했다. 나는 내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미등록자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이 많이 열악하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복지와 문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며칠 후 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는 거친 욕을 퍼부으며 기사에 인용된 내 생각을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기사화된 것이다. 기사에 달린 반대 댓글들을 보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라는 생각에 침통해하던 기억이 있다.

그 후 2년이 흐른 지금, 대세는 다문화라고 한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시대에 다문화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역 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다문화 관련 지원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 간절하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회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다문화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자들의 가정이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피폐하다.

선교하기 힘든 나라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에자스는 성폭행당한 소녀의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를 찍다가 무슬림에게 쫓겨 G1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파키스탄에 남아 있는 그의 가족들은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고, 아내의 남동생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오해를 받아 처형당했다고 한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난민 신청 중인 그는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다. 그의 아내는 파키스탄에 남아 있는 가족들 생각에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나마 유일하게 기쁨을 주는 것은 얼마 전 한국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존이다. 같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리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났다. 산업 연수생으로 온 리타의 부모는 산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리타가 태어나면서 그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체류기간이 끝나 버리고 말았다. 얼마 전 중학교에 입학한 리타가 눈에 띄게 말 수도 줄었고 웃지도 않는다며 리타 엄마가 상담을 요청하였다. 리타와의 상담으로 중학교 이후로는 더 이상 진학하지 못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등록자 자녀들이라도 UN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초중등 교육은 의무이지만 고등학교 진학은 어렵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그 후 교육청에 확인해 보고 고등학교 진학도 가능하다는 말을 전하자 리타는 그 자리에서 펄펄 울었다. 지금은 많이 밝아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교 이후의 삶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한국인처럼 교육을 받는데 고등학교 교육이 끝나면 바로 미등록자가 되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현재로서는 리타에게 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이처럼 다문화가 대세라는 오늘날에도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이 존재한다. 또한 선교하기 힘든 나라에서 온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시편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여호와께 꾸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또한 다문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우리 기독교인만의 거룩한 사명일 것이다.



글 | 강희숙

아세아연합신학교 기독교교육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있다. 현재 다문화교회 전도사로 한국다문화학교 교감이자 안산이주민센터 교육문화팀장이다. 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회원이기도 하다